

배포 2024. 8. 5.(월) 15:30

보도시점

(인터넷) 2024. 8. 6.(화) 06:00

(지면) 2024. 8. 6.(화) 석간

교육부, 지자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영유아 지원모델 찾는다

- 8월 6일(화), 교육부-포천시 공동 주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 개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와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8월 6일(화)에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에서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유보통합과 지역 중심의 영유아 통합 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유보통합 추진 등 정책 변화와 유아 교육·보육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영유아 지원모델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천시는 영유아의 중심의 교육·보육 통합 정책추진을 위해 지난 7월 인구성장국 ‘애지중지팀’ 신설 등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등 영유아 정책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선정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제 발표에는 권미경 선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이 ‘유보통합과 지역 중심 영유아 지원 모델(안)’이라는 주제로 유보통합 관련 정책을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방향 등에 대해 발표*한다.

* (논의) ▲ 정책 수요자인 양육자의 요구와 지원 정책 동향 ▲ 영유아 지원 정책에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 논의/ (제안) ▲ 지역 사례 등을 통한 향후 지속 가능한 지역 중심 영유아 통합지원 방향 제안

토론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좌장을 맡아 유보통합 및 지역 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방향성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후에는 영유아 정책의 미래상에 대해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 영유아 부모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의 통합적 발전과 지역 중심 정책 모델에 대한 논의가 현장에서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전문가 및 관련 분야 간담회 등 사회적 논의와 추가 정책연구를 통해 유보통합을 비롯한 향후 정책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영유아 정책 현장 간담회 개요

담당 부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남점순 (044-203-7201)
		담당자	서기관	안진영 (044-203-7205)

□ 행사 개요

- (목적)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유아교육·보육 서비스의 통합 발전 방향 논의, 지역사업 모델 발굴 관련 의견청취 등을 위한 현장 간담회
- (주제) 유보통합과 지역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 방향
- (일시) 2024년 8월 6일 (화) 10:30 ~ 12:00
- (장소) 포천시 면암중앙도서관 1층 세미나실
- (참석자) 약 100여 명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 영유아정책총괄과장, 영유아기준정책과장 등
 - (의원실) 김용태 국회의원, 보좌관 등
 - (포천시) 포천시장, 인구성장국장, 교육정책과장, 포천교육지원청 등
 - (관계기관·전문가)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박사, 한국보육진흥원 육아종합지원본부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등
 - (유치원·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어린이집연합회 각 분과장 등
 - 그 외 포천시 영유아 부모 50여 명

□ 진행 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0:30~10:40(10')	인사 말씀 및 참석자 소개	포천시장 국회의원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
10:40~10:45(5')	<브리핑> 지역 영유아 정책 현황 보고	포천시 교육정책과장
10:45~11:00(15')	<기조발제 : 사례 발표> 유보통합과 지역 중심 영유아 지원모델(안)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박사
11:00~11:50(50')	<주제 토의> 유보통합, 지역중심의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의 방향성 ※ [진행순서] 주제 관련 모두 설명(교육부) → 청중 질의 및 패널 응답	<좌장> 국회의원 <패널> 포천시장 영유아정책국장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박사 영유아기준정책과 담당자
11:50~12:00(10')	마무리	